

ICT산업 HOT CLIP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2020. 05. 28 Vol. 45

2020. 05. 28
Vol. 45

ICT산업 HOT CLIP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산업 Brief

- 기고문 | 스마트헬스케어 동향
- ICT Espresso

정보통신방송사업 Scrap

- 정보통신방송사업 'ZOOM IN'
- 인포그래픽 |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ICT
기업을 위한 범부처 지원 정책
- 알림 Talk | KCA 일정안내
- 캘린더 |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 Invitation

Job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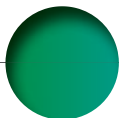
- 일자리 정책 및 뉴스
- 수행기관 채용정보
- 사업자 일자리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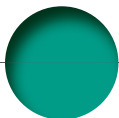
2020. 05. 28
Vol. 45



CONTENTS



01 ICT산업 Brief



기고문
스마트헬스케어 동향
ICT Espresso

02

정보통신방송사업 Scrap

정보통신방송사업 ‘ZOOM IN’
(주)모토브 / (주)모팩

인포그래픽
ICT 산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양한 지원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ICT 기업을 위한 범부처 지원 정책

알림 Talk

캘린더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Invitation

03

Job Talk

일자리 정책 및 뉴스
수행기관 채용정보
사업자 일자리매칭

발행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발행일 2020년 5월 28일
편집 기금성과평가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 주식회사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뉴노멀시대의 도래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헬스케어 동향



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본부 ICT산업전략팀 수석

정보관리기술사 이병목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스마트헬스케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우리 사회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 이용시설 사용 제한, 원격·재택 근무 강화 등 비대면 접촉의 일상화로 기존 사회·통념의 빠른 변화와 함께 언택트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향후 코로나19 비상사태 이후의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은 현 비상사태의 단기적 비상조치가 장기적으로 정착되면서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더 많은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강화된 디지털인프라, IoT/빅데이터를 사용한 강화된 모니터링, AI기반 신약개발, 원격진료, 더 많은 온라인쇼핑, 로봇에 대한 의존도 증가, 더 많은 디지털 가상행사, e-스포츠의 증가 등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 서비스가 강화된 변화된 사회상으로 예측되고 있다.²⁾

특히,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과정을 통해 의료 체계와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빠른 진단키트 개발, 치료제 및 백신개발 기간의 단축, ICT활용 비대면 방역 및 원격진료 등 기존의 의료서비스에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주요 해외국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의 차단을 위해 이번 코로나19사태

를 계기로 의료현장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원격의료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는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치료·병원 중심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 데이터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가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IoT, 클라우드 등 기술발전에 힘입어 급성장 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에 힘입어 기존의 막연한 구호와도 같았던 예측·맞춤·예방·참여의료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헬스케어 시장동향 및 주요이슈

3) 스마트헬스케어 유망시장 및
진출전략('18, KOTRA)

4) 디지털헬스케어 동향 및 시사점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헬스케어 시장규모는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960억달러('16)에서 2,060억달러('20)까지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병원,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전문업체 등 기존의 전통사업자와 글로벌ICT기업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 등 신규사업자들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경쟁과 협력 중에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스마트헬스케어를 적극 추진 중이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의료시스템 부재,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헬스케어를 추진하고 있다.³⁾

기존의 아날로그 의료체계에 IoT·모바일·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이 접목되어 의료·건강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축적되어 데이터의 양적 폭증과 질적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커넥티드 헬스케어 구현가능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질병 예방관리가 보편화되고, 수요자 중심(On-demand)의 헬스케어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기존 보건·의료행위에 질병진단, 의료데이터 해석 등 다방면에 인공지능 분석·예측기술이 적용되어 의료인의 역할을 보완강화하고 신개념 의료서비스도 창출되고 있다.⁴⁾

스마트헬스케어의 핵심기술은 비침습 무구속 무자각 건강정보 측정기술, 맞춤형 진단 및 현장진단기술, 개방형건강관리 플랫폼 기술,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기술의 세계 최고 기술보유국은 미국으로, 국내의 경우 미국과 약 1~2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⁵⁾

1) The world after coronavirus
(The Financial Times, Yuval Harari)

2)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 Coronavirus World
(Forbes)

스마트헬스케어 주요기술 및 기업 생태계

- 5)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기술동향과 과제
(' 17.12, 주간기술동향, IITP)
6) 스마트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 18, 삼성KPMG)
7) 스마트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 18, 삼성KPMG)

비침습 무구속 무자각 건강정보 측정기술로는 기술소변, 모발, 타액, 눈물 등 비침습성 생체시료 채취 및 분석 기술과 최소침습성 생체시료(혈액, 뇌척수액) 추출 기술 등 비침습 자가건강진단기술, 무구속 생체신호 측정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활용한 무자각 생활정보패턴 측정기술, 인체이식형 생체신호 측정기술이 있다. 맞춤형 진단 및 현장진단기술은 유전정보 기반 맞춤형 진단기술, 현장진단 바이오칩/센서 기술이 있고, 개방형 건강관리 플랫폼 기술로는 개인건강레코드 구축공유활용 기술, 건강 빅데이터 분석기술,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플랫폼 기술이 있으며, 맞춤형 원격건강관리 서비스기술로는 원격건강모니터링 기술, 맞춤형 원격진료기술, 맞춤형 원격치료 기술이 있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ICT기술로는 빅데이터 기술이 49.5%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장치와 센서가 개발되면서 의료 분야 데이터가 급증하고 향상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35.3%로 진단 및 예측 결과 개선, 신약개발에 활용하여 개발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중요 기술로는 사물인터넷(14.8%), 가상·증강현실(2.5%), 로보틱스(1.6%)순이며, 다양한 기술들이 향후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⁶⁾

스마트헬스케어의 부상은 다양한 이중 산업의 플레이어를 불러들여 헬스케어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헬스케어산업의 전통사업자라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업체, 제약회사, 의료기관과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체, 모바일 OS 업체, 통신사가 주축이 되어 코퍼티션(Copetition, 경쟁과협력)을 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IT공룡의 진출과 신규시장 진입자들이 기존의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보험사 등과 제휴를 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M&A, 합작회사 설립 등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IT기업, 제약회사, 보험회사, 약국체인, 스타트업, 심지어 차량공유 서비스 등 다른 분야까지 넘나드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⁷⁾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기업현황은 산업연구원('16년)에 따르면 기기·부품 중심의 HW 기업이 약 77%를 차지하며, 플랫폼·콘텐츠·진단·건강관리 등 SW기업은 23%에 불과하다. 기존 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전통/신규 사업자 현황

전통 사업자	대표기업				특징
	의료기기	필립스	GE	지멘스 ...	
	제약회사	Johnson&Johnson	Novartis	Pfizer ...	
	의료기관	삼성서울병원	Mayo Clinic	헬싱키 대학 병원 ...	
신규 사업자	대표기업				특징
	웨어러블 디바이스	Fitbit	ZIKTO	Jawbone ...	
	모바일 OS	Google	Apple	Microsoft ...	
	통신사	Qualcomm	AT&T	NTT Docomo ...	

- 8) 디지털헬스케어:의료의미래
(최윤섭)

전문기업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진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며, 대형병원의 SW투자 및 시장진출, IBM 왓슨 도입, AI 스타트업 증가 등 의료데이터와 AI간 융합을 중심으로 新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국내 스마트헬스케어분야 스타트업은 개인건강관리 및 웰니스, 진단 및 검사, 디지털치료제, 의약품개발, 유전자분석, 보험, 의료상담분야 등에 포진해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세계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 스마트헬스케어 스타트업 38개 중 한국 스타트업은 전무한 상태이다. 디지털기술의 융합으로 의료와 관련 산업이 큰 변화를 거치며,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스마트헬스케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특수한 의료시스템, 저수가, 작은 시장크기, 높은 의료 접근성 규제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규제의 경우 헬스케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100대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중 63개의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러한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사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⁸⁾

미래의료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재화이자, 새로운 권력이고, 새로운 경쟁요소로서, 누가 소유하고, 접근권을 어떻게 부여하고,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보호관리 하는가 가

데이터와 스마트헬스케어

9) 디지털헬스케어:의료의미래
(최운섭)

10)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분야
도입사례 분석집
(' 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스마트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 18, 삼성KPMG)

12) '데이터 3법' 통과...보형제, '헬
스케어 등 신사업 확장' 기대감
↑ (에너지경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에 의한 스마트헬스케어 구현은 다양한 기기·장비로 부터 데이터의 측정,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의 통합,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의 분석의 3단계를 통해 구현된다.⁹⁾

스마트헬스케어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이 가진 유전자 염기서열 등 유전체정보, 스마트폰, IoT기기 등을 통해 쉽게 수집되는 개인 Life-log 등의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이 보유한 환자 진단정보, 처방자료, 처방결과 등의 전자의무기록을 말한다.¹⁰⁾

각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중에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이 되는 정밀의료 및 개인별 맞춤진료는 유전체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 유전체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질병 스크리닝이 가능해지고, 적합한 약물과 용량 선택이 가능해지며, 종합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양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또한, 진단, 처방, 치료를 위한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기 위해 기준이 되는 표준 유전체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 염기서열과 질환, 의약품, 처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¹¹⁾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향상을 기대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가명 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명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충분한 비식별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연구·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가명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¹²⁾

인공지능과 스마트헬스케어

13) 디지털헬스케어:의료의미래
(최운섭)

14) 스마트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 18, 삼성KPMG)

15) 인공지능과 의료혁신, 첨단융
합기술 의료기기 규제과학 심
포지움(2018)

예방의료, 예측의료, 맞춤의료를 근본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만 발병이나 상태악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거나 맞춤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속적인 데이터의 모니터링은 24시간 365일 연속해서 진행되고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복잡성 때문에도 인공지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¹³⁾

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5년 8억 달러에서 연평균 42%의 빠른 성장을 통해 2021년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처리, 이미지인식, 음성인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분야에 접목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시킬 것으로 보인다. 많은 유전체 정보분석을 통한 질환 발현 시기 예측, 개인 맞춤형 진단 및 생활습관 정보 제공을 통한 질병 발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진료 시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가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되고, 저장된 의료 차트 및 의학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질병 진단정보를 제공하거나, 컴퓨터 스스로가 환자의 의료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암과 같은 질환에 대한 진단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해 의사의 진단을 도울 수 있다. 또한, 개인 맞춤형 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약물의 부작용을 예측하여 처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¹⁴⁾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의료적용 분야는 임상시험에서 케이스선정, 신약개발, 진료보조로써 비서서비스, 음성인식 의무기록을 들 수 있고, 데이터기반 정밀의료로써 유전체 분석, 약혼합사용 및 합병증 예측, 진단검사추천, 판독보조를 위한 정상유무판정, 유사증례검색, 판독문 생성, 병리분야 판독보조, 그리고 물류, 수술실, 병실 운영, 로봇수술 등을 들 수 있다.¹⁵⁾

메디컬온디맨드 서비스의 시작, 원격의료

코로나19사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간 오랜 시간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원격진료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의료프로세스 재정립, 진료비,처방전, 의약품 수령 등 시행에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원격의료는 언제 어디서나 환자가 원할 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시장 데이터 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세계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2015년 181억 달러에서 2021년 412억 달러로 연평균 14.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상담, 원격의료교육, 원격의료훈련, 원격수술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는 원격진료상담 서비스이지만, 향후 노년층의 증가나 당뇨병, 파킨슨병 등과 같은 질환의 증가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¹⁶⁾

디지털치료제

- 16) 스마트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 18, 삼성KPMG)
17) 디지털치료제, 혁신인가 거품
인가? (최윤섭)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란 스마트폰 앱, 게임, VR, 챗봇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FDA나 식약처와 같은 규제기관에서 질병관리나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로 인허가 받은 소프트웨어를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가 처방하고, 또 의료 보험도 적용되는 것이다. 2017년 미국 FDA로부터 중독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허용받은 페어테라퓨틱스의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당뇨병, 우울증, 불면증, ADHD, PTSD, 비만, 치매, 자가면역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이 앞다투어 시도되고 있다. FDA도 이런 새로운 의료기기와 관련한 규제를 발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디지털치료제는 개발기관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낮으며, 확장성은 무한대에 가깝다. 또한 의료분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골연령 판독 인공지능과 같이 하드웨어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된 의료기기로서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즉,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와 MRI기기내에 사진판독 인공지능이 내장된 하드웨어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SiMD(Software in a Medical Device)의 발전도 전망된다.¹⁷⁾

스마트헬스케어 국내 활성화 및 글로벌시장진출

- 18)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군분석 및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15, 한국U헬스협회)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인증심사·유지비용, 표준관련 정보획득 및 적용여부의 불명확, 필요기술 식별의 어려움, 고가의 도입비용, 또한 타 기업과의 협업 및 해외마케팅 어려움이 있고, 의료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해소, 연구개발·평가 지원,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¹⁸⁾

이에,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관과 기업은 정밀, 예측, 예방,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여,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VR/AR, 로봇틱스 등 스마트헬스케어 주요 기반기술을 M&A나 협업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기준 명확화, 기술적 관리적 체계마련 등 의료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을 확대해야 하고, 디지털치료제, SaMD 등 지능형 의료SW 인허가 체계 개선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 스마트헬스케어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주요 진출국별 언어·의료환경·기술수준 등에 대한 세밀한 시장정보 제공과 현지화 전략수립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해외 인증 규격 관련 정보의 국가적 대응방안 파악과 중소 벤처 기업 대상의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ICT와 비ICT 업계 간, 대·중소 기업간 기술 제휴, 합작사 설립, 공동마케팅 등 협력을 통한 공동상품기획 및 마케팅, 공동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

ICT ESPRESSO

콘텐츠

문화유산, VR·AR을 만나다...디지털 실감콘텐츠 공개

국내 문화유산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이 만나 제작된 '실감콘텐츠'가 20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디지털 실감영상관'으로 문화유산 실감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98450

바이오헬스

코로나19 '헬스케어의 뉴 노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가를 막론하고 의료는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은 인류가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전시 상황이다. 전시에는 평시에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금기가 허물어지기도 한다.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51918361>

클라우드

클라우드 업계, 코로나19 확산 각축전 '후발주자의 반란'

코로나19 여파로 클라우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을 잡으려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돌보인다.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업체들을 따라잡고 뛰어 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m.fnnews.com/news/202005171415059749>

디바이스

오디오로 열리는 새로운 세상... '히어러블' 전성시대

애플의 '에어팟'을 분수령으로 시작된 '히어러블 열풍'이 2020년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이어폰 잭이 없는 무선 이어폰은 '히어러블'이라는 이름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중이다.

원문보기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43>

IoT

과학적 재난관리, IoT 기술과 드론으로 산사태 피해 줄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을 맞아 지난 18일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사태 무인 감시 센서,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산사태 예방 활동에 나섰다 밝혔다.

원문보기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8264>

인공지능

무섭게 진화하는 'AI'... 사람보다 독해 잘하고 기업부실 예측

삼성전자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자연어 이해 학습모델은 이번달 한국어 기계독해 경진대회 'KorQuAD 2.0' 성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실제 정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율 'EM'과 정밀도·재현율을 종합 고려한 'F1' 점수를 평가한 결과, 각각 73.51점과 86.56점을 받았다.

원문보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7/202005

SW

"미래 직장인 성공 키워드는 SW...프로젝트 중심 연마 필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 소프트웨어(SW)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대학생 여러분, 어떤 학과에 입학했든 반드시 SW를 공부하십시오."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51763381>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 이후 '뉴노멀' 되려면...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정착될 빅데이터 기술이 보다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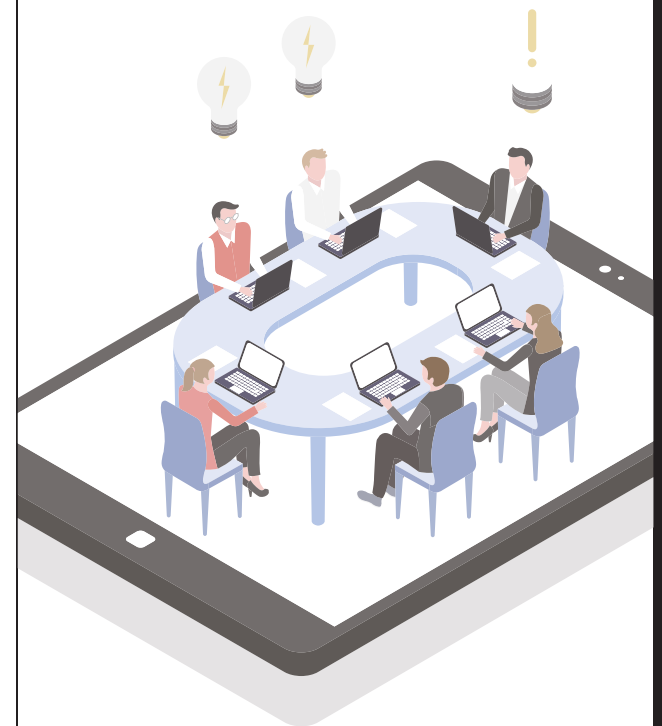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

네트워크

5G, 코로나 대응에 큰 공...한국판 뉴딜 기반 키운다

코로나19의 파장을 가장 먼저 탐지한 것은 인공지능(AI)이다. 다만 글로벌 수준의 보건 위기에 따른 변화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비대면 일상화로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은 바뀌었고, 산업 전반의 거센 변화도 거스르지 못했다.

원문보기

<https://www.zdnet.co.kr/view/?no=20200514185226>


ICT
ESPRESSO

국내 최초 모빌리티 미디어 플랫폼 '모토브' 전국 택시 광고에 불을 밝히다

(주)모토브
임우혁 대표

기업현황

- Ceo : 임우혁
-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 설립연월 : 2016월 9월
- 홈페이지 : www.motov.co.kr

일반현황

- 수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내역사업명 :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플랫폼 구축
- 참여사업명 : 이동형 미디어 활용 유동인구 및 환경 빅데이터 센터 구축

최근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미디어 플랫폼 사업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미국, 유럽 및 동남아에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사업으로 대두되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뉴욕, LA 등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특히, 공유차량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운송종사자의 수익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모빌리티와 디지털 광고가 결합된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 모빌리티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한 모토브는 바로 이러한 모빌리티와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내 최초 디지털 택시표시등 광고 사업을 시작했다.

모토브가 개발한 모빌리티 미디어 플랫폼의 택시탑 디바이스에는 통신모듈, 환경센서, 위치센서, 지능형 AP 등이 탑재되어 도심의 다양한 환경 및 유동인구 변화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

모토브는 이 플랫폼을 통해 유동인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과 유동인구에 맞는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사업 고도화를 위해 좀 더 다양한 통신사의 고객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과 데이터의 분석과 예측을 통한 광고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보통신방송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이동형 미디어 활용 유동인구 및 환경 빅데이터 센터 구축 과제를 수행했다.

사업 참여를 통해 대전 및 인천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됐다.

국내 최초 모빌리티 미디어 플랫폼 '모토브'

2016년 9월에 설립한 모토브는 미국 뉴욕 택시 관제시스템 VIPER의 기술개발을 총괄한 경험이 있는 임우혁 대표가 국내 최초 택시지붕을 활용한 디지털 택시표시등 광고 사업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설립한 기업이다. 2016년 설립당시 더큰 나눔엔티엔이라는 사명으로 시작한 모토브는 올해 1월 사명을 모토브로 변경하기도 했다.

모토브가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택시표시등 광고는 택시 지붕에 LCD 광고 장치를 설치하여 24시간 디지털 광고를 송출하며, 위치에 기반하여 택시가 주행하고 있는 지역과 시간에 적합한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광고 플랫폼이다.

모토브는 현재 디지털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을 대전과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조만간 서울에서도 디지털 택시표시등을 장착한 택시를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의 일부는 택시기사에게 환원하고, 택시기사 복지기금 조성에 할당하므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사회적(범죄 방지), 경제적(광고로 인한 부가 수입) 효과 창출 및 신규 성장 사업으로 지역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광고주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본 사업으로 전개 시 서울 및 국내 주요도시를 기반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전국 도로 근접 지역의 유동인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해나 교통사고 시 가장 근접에서 해당정보에 대한 처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토브에게도 고민이 있었다.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했다. 교통데이터를 비롯해 소비정보, 온라인 고객데이터, 고객경험 정보 등 다양한 참여사 간의 데이터 협업은 새로운 혁신 데이터를 생성해 수요기업에게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졌다.

● CES 출품 등 스마트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

이에 모토브는 데이터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통신데이터의 융합 가치 발굴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모토브는 '이동형 미디어 활용 유동인구 및 환경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지금까지는 광고 효과 측정이 어려웠던 옥외광고 측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모토브는 디지털 택시표시등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병합하는 DMP(Data management platform)를 통해 광고주가 광고 집행 시 광고 효과를 예측해 광고비 절감과 같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광고 집행 후 효과 분석을 도와주는 광고주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택시탑 위에 설치되는 택시탑 스마트 미디어로 도심의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6종의 환경정보 및 차량 센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서비스/제품 개발에 활용하고자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 수집 데이터를 반영한 유익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수행했다.

또 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하드웨어와 플랫폼 기술을 CES에 출품해 국제적 관심과 함께 다양한 국가의 파트너들과 파트



너집을 구축하고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토브는 해외 경쟁사 대비 하드웨어 및 플랫폼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지난 1월 미국 CES 전시회에 참여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코리아 빅데이터 어워드에 참여해 서비스 부문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임우혁 모토브 대표는 "사업 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존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미디어 효과 측정에 활용했다면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지자체, NIPA 등 정부기관 및 스마트 시티 관련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 효과적 광고 타겟팅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협업에 효과적

모토브는 앞으로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분석 및 예측 모델을 개발, 최종적으로 택시탑 매체 광고 플랫폼의 광고 효과 측정 및 예측을 통한 효과적인 광고 타겟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옥외광고 효과 분석/예측 시스템은 다양한 옥외광고 매체와 연계 가능하며 이를 확장 가능한 형태로 개발해 택시탑 광고 플랫폼 외 지하철 광고 사이니지, 버스 광고 사이니지 등 많은 옥외광고 서비스에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토브는 경쟁사의 서비스와 달리 스마트 시티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최적화된 자체 하드웨어를 개발해 가격경쟁력 및 데이터 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이동형 미디어로서는 세계 최초로 실시간 타겟팅 광고 및 매체 효과 분석이 가능한 플랫폼의 실증을 완료해 더욱 기대가 크다.

모토브는 사업에 참여해 외부적인 성과를 낸 것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협업이 용이해졌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임 대표는 “이전에는 데이터 처리 및 제공 방식에 있어 자체 규정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타 기관, 기업과 협업에 있어서 매번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정의에 대한 부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했었다”면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데이터 처리 규정 및 데이터 연동 규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플랫폼 및 센터 간 데이터 협업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외부적인 성과를 낸 것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협업이
용이해졌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미니인터뷰

Q1. 사업 참여로 인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자체 미디어 효과측정에 활용했다면,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해 지자체, NIPA 등 정부기관 및 스마트 시티 관련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CES에 출품해 국제적 관심과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전부를 걸고 이번 사업에 임했습니다. 사실 데이터 기술이 저희가 진행하는 택시탑 스마트 미디어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차별성이고, 경쟁력이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마일드스톤 설정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회사도 전사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인력 강화를 위해 1년간 기존 인력에 준하는 신규 R&D 인력을 채용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심성과

- 세계최초 이동형 미디어 활용 유동인구 및 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 CES 출품을 통해 해외 판매 시장 개척

Timeline

2016. 09



(주)더큰나눔엔티엔
설립



2017. 06

대전광역시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출범

2018. 12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 대상
한국데이터진흥원장상 수상



2019. 05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사업계약 체결
(인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2019.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센터 지정(통신분야)



2020. 01

미국 CES 전시회 참가

2020. 01



법인명 변경 : (주)더큰나눔엔티엔
→ (주)모토브
본사 이전 : 대전광역시 문지로 193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인천글로벌 캠퍼스)

모팩, 제작역량강화로 VFX의 새 지평을 열다

(주)모팩
안희수 실장

기업현황

- Ceo : 장성호
- 업종 : 영화제작업, 애니메이션제작, 영상물제작
- 설립연월 : 1994년5월
- 홈페이지 : <https://www.mofac.com/>

일반현황

- 수행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제명 : 컴퓨터그래픽산업육성
- 참여사업명 : 2019년 컴퓨터 그래픽 전문기업육성사업

코로나19사태로 인해 CG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일차적으로 언택트 제작 환경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OTT서비스를 통해 영상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기존의 콘텐츠 배급 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형태도 숏폼 콘텐츠 등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IT산업의 등장으로 산업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콘텐츠 시장 또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 다음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VFX 전문기업인 모팩도 이러한 시장에 발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빠른 변화 속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팩은 지난해 해외시장에 대응하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프로덕션 능력 고도화와 신규 사업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정보통신방송사업에 참여했다.

모팩은 신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컴퓨터그래픽육성사업 참여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현 시장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글로벌 VFX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모팩은 세계를 선도하는 K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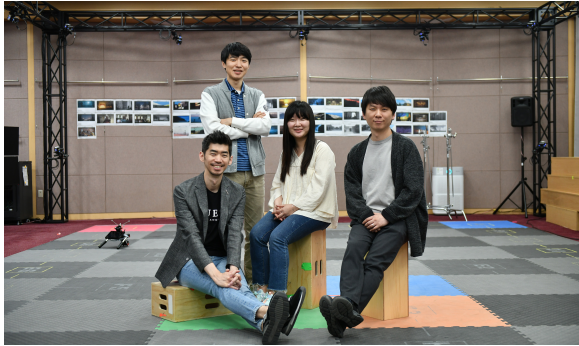
국내 VFX 전문기업 모팩,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모팩은 1994년 설립된 이후 27년간 250여 편 이상의 작업을 해 온 기업이다. 국내 유명 VFX 기업들 중 최고의 회사 중 한 곳으로 손꼽히며 국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모팩은 최근 해외로 진출해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VFX란 시각적인 특수효과로, 존재할 수 없는 영상이나 촬영 불가능한 장면 또는 실물을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법과 영상물을 말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제작하는 CG는 VFX에 포함된다.

모팩은 VFX 기술력과 강력한 투자 파트너를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과 테마파크 기획 및 디자인, 공간 기반 엔터테인먼트 마스터플래닝 등 뉴미디어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모팩 만이 선보일 수 있는 창의적 작품을 통해 중국과 아시아를 넘어서는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공급하는 트렌드 리더이자 문화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있다.

모팩은 한국영화의 VFX 태동기부터 CG 기술을 개발해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디지털 크리처와 디지털 크리처와 FX 시뮬레이션 기술을 성공적으로 국내에 도입했다. 또 중국영화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기회로 국내를 벗어나 중국시장에 진출해 제작비 300억 이상의 영화에 VFX를 성공적으로 작업했다.



국내 및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모팩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시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와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중국 이후에 새롭게 떠오르는 동남아국가들의 성장으로 국내 VFX 시장은 위축되어 있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성장으로 글로벌 콘텐츠 VFX 시장의 성장 기대감은 높아졌다. 이에 해외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덕션 능력 고도화, 기존 영화, 드라마 매체를 넘어 실감콘텐츠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기에는 초기 비용과 인력 확보가 만만치 않았다.

안희수 모팩 실장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지만,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초기 비용과 인력에 투자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게는 단비와 같았고, 시장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전략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연간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모팩은 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업체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해 영화, 드라마의 VFX 기술을 베이스로 여러 융합 콘텐츠와 IP개발 등 사업 다각화를 도모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외 전문 인력 초청, 신규 인력 양성 등 제작역량 강화

모팩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업이 가진 제작역량강화에 집중했다. 모팩은 디지털 크리처, FX 시뮬레이션 같은 기술 뿐만 아니라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VFX 분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덕션 매니징, 하드웨어 설계 같은 인적 물적 시스템을 효율화하여 기술과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이지만, 미래를 위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팩은 제작역량강화를 위해 조직 운영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확보, 제작 여건 강화 등을 추진했다.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사업팀을 만들어 해외 제작/투자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해외 전문인력 초청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해 내부 직원들의 제작역량을 강화했다. 모팩은 글로벌 제작 경험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아티스트 개인 역량 발전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해외

우수 기술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 향상과 자사 노하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직업 아카데미인 모팩아카데미를 설립해 우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다각화를 위해 자체 IP 제작본부와 뉴미디어 팀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영화/드라마 뿐 아니라 다양한 융합콘텐츠를 제작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자사 내에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 센터를 구축해 국내 VFX기업 최초로 150평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공용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프로젝트의 작업 효율을 증대할 수 있었고, 노후된 장비를 우선으로 부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등 개인장비도 업그레이드해 신규입사자와 기존재직자와의 직무분석을 통한 장비 재배치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 인적·물적 미래 성장동력 확보

모팩은 이번 사업 참여로 인적·물적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모팩은 글로벌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조직운영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문화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영상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 개발계획 등의 제작역량강화를 꾀했다. 또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켓 참가, 해외네트워크 활동,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에 활동도 수행했다.

안 실장은 “CG전문기업육성사업을 통해 무엇보다도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생겨나는 직군의 경우 외부에서 수혈할 수가 없기에 기업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모팩이 구축한 버추얼 프로덕션은 기존 CG 솔루션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선도 기술로 기대된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기존 CG솔루션과 다르게 게임 엔진을 활용해 퍼포먼스캡처를 실시간으로 리타겟팅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렌더링해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CG 기술의 한계로 콘텐츠 제작 구성원들이 각각 역할에 따라 단절되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제작환경을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작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모팩', K콘텐츠 선도기업 목표

모팩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온 기업 정신이 있다. 초창기 필름 스캔을 통한 CG제작부터 FULL CG샷 제작까지 27년 동안 CG 시장의 기술과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국내 VFX 기업 중에서도 25년의 최장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모팩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 도전하고 적응해왔다. 이러한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역량강화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현재 모팩은 CG전문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처럼 2019년도에 PGK, CGK 초청세미나를 개최해 새로운 기술을 업계 종사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관련 업계

들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모팩은 강화된 제작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K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팩은 CG기술기업을 기반으로 단순히 CG기술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업체로 국내의 우수한 창작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작환경을 제공해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K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안 실장은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모팩은 앞으로 다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과 함께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니인터뷰

Q1. 정보통신방송사업 참여 동기는 무엇인가요?

“국내 VFX시장은 위축된 반면, 글로벌 콘텐츠 VFX시장의 성장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에 대응하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프로덕션 능력의 고도화와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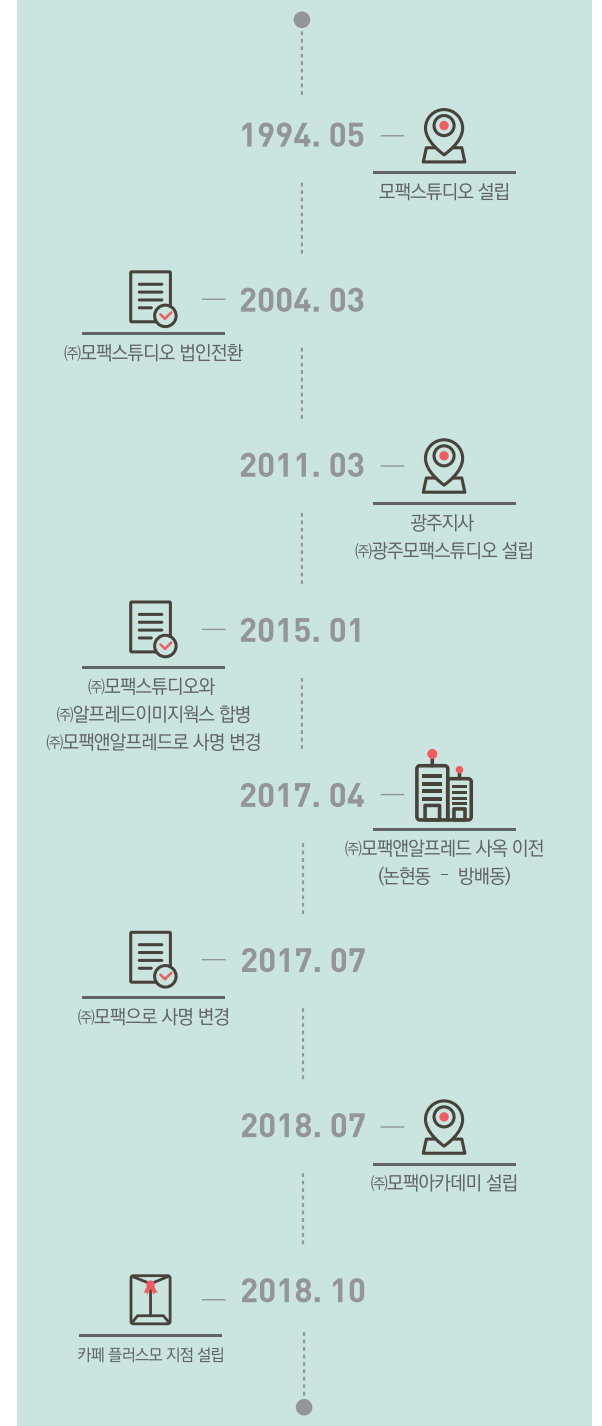
Q2. 사업 참여를 통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CG전문기업육성사업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직군도 육성사업을 통한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콘텐츠 제작역량강화와 해외진출 여건 마련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핵심성과

- 기업 및 자체 IP 프로젝트 등 총 280억 규모의 투자유치
- 국내 VFX기업 최초로 150평 규모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 해외 네트워크 성공적 구축과 직영아카데미 설립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Timeline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ICT산업 분야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안내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ICT산업분야 기업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ICT기업 피해애로 상담 문의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02-580-0564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043-931-5042

R&D자금 융자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ICT중소기업**
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시기(기간) '20.2~

문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소기업지원팀
042-612-8593

ICT R&D 사업참여기업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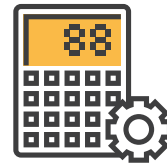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후관리팀
042-612-8750

민간부담금 및 현금 비중 완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략기획팀
042-612-8110
· 지원시기(기간) '20.3~

차질없는 예산집행



중소기업 관련 ICT사업 **선정평가 시행**
·지원시기(기간) '20.3~

문의처

· R&D IITP 042-162-8001
· 비R&D KCA, NIPA, NIA, K data, KISA

대체부품 재인증 지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정보통신시험
인증 등 재인증 **조속처리 및 소요비용 지원**
·지원시기(기간) '20.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031-780-9113
·한국전자진흥협회(RAPA)
02-703-2415

공공조달 유연성 확보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조달 관련 지체**
상금 면제 시행 (기재부 지침 준수)
·지원시기(기간) '20.2~

장비 사용료 및 시설 임대료 인하 등 기업부담 경감



ICT 사업지원기관*의 **보유장비 사용료 감**
면 및 인프라 시설 입주기업 임대료 인하
*KCA, NIPA, ETRI, TTA, KISA, GERI, KOTRA
·지원시기(기간) '20.2~

장비사용료 지원 문의처

KCA 빛마루방송지원센터
031-8073-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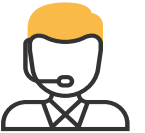
NIPA ICT문화융합센터
031-5182-9130
3D프린팅 혁신성장 센터
(3D-FAB)
02-6925-3363

디바이스 - FAB
031-5171-5900
KoVAC(공동제작센터)
02-2132-0503

GERI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시설
054-460-9031

TTA 단말기 국제공인시험인증시설
031-780-9110

ETRI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
042-860-6889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042-860-4911



임대료 지원 문의처

KCA 나주청사, 가락동IT벤처타워서
관, 부산본부, 경북본부(대구), 전북
본부(전주),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899-5599

NIPA 누리꿈스퀘어
02-2132-1000
IoT기술지원센터(인천송도)
032-720-8200
ICT문화융합센터
031-5182-9130

싱가포르 IT지원센터
+65-6221-7380
하노이 IT지원센터
+84-24-7300-0671
호치민 IT지원센터
+84-33-796-453
한·인도SW 상생협력센터
+91-99026-16942

KISA 정보보호 클러스터
02-405-6442

KOTRA 베이징/도쿄 IT지원센터
02-3460-7472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화상회의 지원 (B2G)

· 지원 시기(기간) : '20.3~

문의처

·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5171-5637

국내 중소기업 우수기술·제품 전시 지원 및 해외 빅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지원시기(기간) : '20년 3분기 중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02-580-0545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042-612-8536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대상 기업 확대

(100개 내외-150개)

절차 간소화(3단계-1단계)

기업의 컨설팅 비용 부담률 **완화**(10~20% 감면)

· 지원시기(기간) : '20.4~

문의처

·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5171-5637

잔여 입주공간 우선제공 및 임대료 인하

· 지원시기(기간) : '20.3~

문의처

·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5171-5637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연택 트IR'

· 지원시기(기간) : '20.4~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043-931-5556

01

card news

코로나19로 고통받는 ICT산업 분야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안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02

card news

대체부품 재인증 지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정보통신 시험인증 등
재인증 조속처리 및 소요비용 지원

지원시기(기간) : '20. 3-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031-780-9110
· 한국전자진흥협회(RAPA) 02-703-2415

공공조달 유연성 확보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조달 관련
지체상금 면제 시행 (기재부 지침 준수)

지원시기(기간) : '20. 2-

임대료 지원

기관명	대상시설	장비사용료 유예 또는 감면(만)
KCA	나주청사, 가락동 IT벤처타워서관, 부산본부, 경북본부(대구), 전북본부(전주), 빛마루방송지원센터 · 문의처 : 1899-5599	임대료 20% 인하(3-5월)
NIPA	누리꿈스퀘어 (서울 상암, 소상공인 등 대상 임대시설) · 문의처 : 02-2132-1000	임대료 20% 인하(3-8월)
	IoT기술지원센터(인천 송도) · 문의처 : 032-720-8200	
	ICT문화융합센터 · 문의처 : 031-5182-9130	100% 인하(상향종료 시까지)
	상가포르 IT지원센터 · 문의처 : +65-6221-7380	100% 인하(3-5월)
	하노이 IT지원센터 · 문의처 : +84-24-7300-0671	100% 인하(4-5월)
KISA	호치민 IT지원센터 · 문의처 : +84-33-796-453	100% 인하(4-5월)
	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 · 문의처 : +91-99026-16942	100% 인하(4-5월)
	정보보호 클러스터 · 문의처 : 02-405-6442	100% 인하(3-9월)
KOTRA	베이징/도쿄 IT지원센터 · 문의처 : 02-3460-7472	50% 인하(3-5월)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글로벌 화상회의 지원(B2G)
· 지원시기(기간) : '20. 3-

문의처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5171-5637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대상 기업 확대
(100개 내외 → 150개)
및 절차 간소화 (3단계 → 1단계),
기업의 컨설팅 비용 부담을 완화(10~20% 감면)
· 지원시기(기간) : '20. 4-

문의처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5171-5637

장비 사용료 및 시설 임대료 인하 등 기업부담 경감

ICT 사업지원기관*의 보유 장비 사용료 감면 및
인프라 시설 임차기업 임대료 인하
* KCA, NIPA, ETRI, TTA, KISA, GERI, KOTRA

지원시기(기간) : '20. 3-

장비사용료 지원

기관명	인프라 시설	장비사용료 유예 또는 감면(만)
KCA	빛마루방송지원센터 · 문의처 : 031-8073-0202	20% 감면(3-5월)
NIPA	ICT문화융합센터 · 문의처 : 031-5182-9130	100% 감면(상향종료 시까지)
	3D프린팅 혁신성장 센터 (3D-FAB) · 문의처 : 02-6925-3363	50% 감면(4.3월~7월)
	디바이스-FAB · 문의처 : 031-5171-5900	50% 감면(3-7월)
	KoVAC (공동제작센터) · 문의처 : 02-2152-0503	10% 감면(5-7월)
	부산영상센터 · 문의처 : 051-720-0301	10% 감면(5-7월)
GERI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시설 · 문의처 : 054-460-9031	100% 감면(3-12월)
TTA	단일기 국제공인시험인증 시설 · 문의처 : 031-780-9110	재인증비용 80% 감면(3월~종소기업)
ETRI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 · 문의처 : 042-860-6889	유예(3월~), 최대6개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 문의처 : 042-860-4911	유예(3월~), 최대6개월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전여 입주공간 우선제공 및 임대료 인하
· 지원시기(기간) : '20. 3-

문의처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5171-5637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엔트릭IR'
· 지원시기(기간) : '20. 4-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043-931-5556

국내 중소기업 우수기술·제품 전시 지원 및
해외 빅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지원시기(기간) : '20년 3분기 중

문의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02-580-0545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 042-612-8536

ICT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응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ICT기업 피해예로 상담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02-580-056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043-931-5042

알림

Talk

<알림 Talk>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사업관리본부의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련 행사 일정을 공유합니다.

#

#KCA #정보통신방송사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년도 정보통신방송사업 (비R&D) 지원사업자 현황 등록 및 기업정보 활용 안내

1

가. 지원사업자 사업관리시스템(PMS) 등록

- 1) 등록대상 : 민간이전 비목으로 집행하는
지원사업(주관·참여 구분 등록)
- 2) 등록내용 : 지원사업자 기본정보, 수행계획
서, 협약서 등
- 3) 등록기한 :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단, 4분기 추진되는 지원사업은
10월 말까지 등록)

나. 지원사업자 기업정보 활용

- 1) 개요 : 지원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기업
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사전에 확
인하여 부실사업자 선정 방지
- 2) 제공내용 : 해당 기업의 일반현황, 신용정보,
재무정보 등을 레포트 형태로 제
공 (붙임3 참조)
- 3) 이용절차 : 조회하려는 기업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한 문서 발송
(수신처 : KCA)

※ 자세한 사항은 pms.kca.kr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년도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위원 인력풀 확대

2

- 목 적 :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업무 및 우수
성과 사례 선정, 자문 등의 업무에 활용
- 모집분야 :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
기초 및 전문 인력양성, 산업 정책
연구, 창업 및 글로벌화, 콘텐츠 제작
- 등 록 : 전문가인력풀시스템
(<https://www.kca.kr/pool>)
회원가입 후 등록



0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4/31	25	26	27	28	29	30
• ETRI 2020년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온라인 해외채용 설명회 접수 마감	• Kdata 2020 제1회 KOREA DATA- BIZ TRENDS 온라 인 행사 개최		• KCA 2020년 5G 실증체 험관 구축 사업 공고 마감	• Kdata(5.28~29) 2020 제1회 KOREA DATA- BIZ TRENDS 온라 인 행사 개최	• ETRI 2020년도 연구인력 현장지원 기업신청	
• NIPA 2020년 3D프린팅 경진대회 접수 마감				• TTA 제1차 RPA를 활용 한 GUI 테스트 자동 화 구현 교육 개최		

06 JUNE

	1	2	3	4	5	6
	• NIPA(6.1~8.14) 2020년 국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 수·직·캘린지' 접수 마감	• KOFAC 2020년 사다리프로 젝트 사제동행팀 모 집 마감			• KOFAC 2020년 학교밖 STEAM 프로그램 개발·운영기관 공모 마감	
	• KISA K-스타트업 정보보 호 성장기업 도약 프 로그램 참가기업 모 집 마감	• KAIT AI이노베이션스퀘어 BM과정 교육생모집 (4차) 마감			• NIPA 2020년 실감콘텐츠 체험학교 모집 신청 마감	
7	8	9	10	11	12	13
• KISA 핀테크 개발실습 초 급과정 교육생 모집 마감	• TTA KOREN, NET 챌린 지 캠프 시즌7 네트 워크 응용분야 아이 디어 공모 마감				• KOFAC 2020년 한국과학창 의재단 과학퍼포머 모집 마감	
	• KISIA 2020 정보보호의날 제품전시회 참가기 업 모집 마감					

2020년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훈련과정 참가자 모집

교육비 전액
무료 지원



사이버보안·정보보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은 국가 사이버침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실사례 기반 인프라 및 시나리오로 구현되어 있는 훈련장에서 조직·개인별 공격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 연간 훈련일정 |

훈련구분	회차	교육일정	교육대상자
역량테스트	1차	06.29~06.30	국내보안인력
일방향 침해사고 대응훈련	1차	06.15~06.19	역량평가 테스트 통과자 or '18~'19 일방향, 양방 향 고급과정 수료자 역 량평가 면제
	2차	07.13~07.17	
	3차	09.21~09.25	
	4차	10.12~10.16	
	5차	11.23~11.27	
	1차	06.03~06.05	국내 보안담당자
	2차	09.02~09.04	
양방향 실전 공방 훈련	1차	07.20~07.22	국내보안인력
	2차	10.28~10.30	일방향(고급)과정 수료자
정보보호 제품군 실습	1차	05.27~05.29	국내 보안담당자(구직자 및 신규 직원 중심)
	2차	06.10~06.12	
	3차	06.24~06.26	
	4차	07.29~07.31	
	5차	09.09~09.11	
	6차	10.21~10.23	
	7차	11.04~11.06	
	1차	07.01~07.03	
	2차	07.08~07.10	
	3차	09.16~09.18	
	4차	11.11~11.13	

| 교육 신청 안내 |

모집대상

공공/민간 보안 담당자 및 구직자 등 보안에 관련된 누구나 참여 가능

교육내용

국내/외 침해사고 사례 기반 시나리오 훈련
침해사고 분석 및 원인 규명을 위한 팀 단위 침해사고 대응 훈련
훈련생 위주의 침해사고 분석 및 원인 규명 훈련을 통해 기술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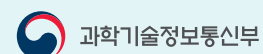
| 홈페이지 |

security-gym.cmcom.kr

| 접수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보안인재센터 홈페이지
academy.kisa.or.kr(회원가입 필수, 선택순 마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security-gym.cmcom.kr



AI BM과정 교육생 모집 INNOVATION SQUARE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비즈니스 창출 역량 배양을 통한
AI인재 양성



▶ 교육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 우대대상 | 인공지능 분야에 이해도가 있는자,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AI관련 교육을 이수한자

▶ 교육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격(실시간 온라인 방식)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기간

(BM) 05.12~06.02 18:00

▶ 접수방법

접수체이지에 방문하여 지원서 제출 <http://ai.koipa.or.kr>

▶ 선정방법

선정평가를 통한 교육생 선정
서면평가 | 제출된 지원서를 기준으로 평가진행
평가기준 | 지원 적합성, SW역량평가, 참여의지 등
전화면접 | 필요 시 전화 인터뷰 예정
우대사항 | 취·창업준비,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대표 추천서 첨부 시 가산점 10점 부여

▶ 선정결과

선정 교육생 개별안내(이메일, 문자)

▶ 과정소개

과정명	BM과정
분야	서비스기획
강사진	AI분야 스타트업 CEO 및 국내 유수 대학 교수 등 특화된 정예 강사진 구성
교육기간	2020.06.08~2020.07.03 [주 5일]
교육내용	·분야별 핵심 AI 기술교육 ·다양한 업종의 빅데이터, AI 적용사례 분석 및 실습 ·BM 발굴 프로젝트는 기업연계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의 모듈을 기반으로 진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교육과정	·의료, 바이오, 금융, 머신러닝, 스마트팩토리 BM 사례분석 ·Image/Video & NLP/Voice AI 개발 ·Pitching Workshop
교육시간	전일반 09:00~18:00 (1일 8시간, 총 160시간)
교육문의	02-580-0715 ai-edu@kait.or.kr

※ 상기 교육일정은 교육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 및 NEWS



일자리뉴스

02

2020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 착수

※ 출처
고용노동부
(2020.05.19)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0988

- 대전 대덕구와 일자리창출 적합모델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이 8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5월 19일(화) 오후 3시 대전대덕구청에서 대전 대덕구와 대전 대덕구 전통산업단지 첨단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모델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작으로 8개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정현 대전대덕구청장,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을 비롯한 컨설팅 지원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01

장애유형,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 일자리 접근성 강화한다

※ 출처
고용노동부
(2020.05.15)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0976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5일(금)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유형·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촘촘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8년 기 발표하여 시행중인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설계·세분화한 추진계획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일자리정책

03

“2020 해외취업 화상 면접 주간” 해외기업 61개사 참여해 673건의 화상면접 진행

※ 출처
고용노동부
(2020.05.14)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0971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이하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5월 14일(목)부터 22일(금)까지 7일간 『2020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Online Job Fair Week 2020)을 운영한다.
- 그동안 글로벌일자리대전을 대면(對面) 방식으로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행사 전반을 비접촉(Untact)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여러분의 일 자리를 공유합니다!

#취업성공
#대박기원

0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5차
직원 채용 공고 (5.19-6.3) ▶

- 채용분야 : 법무 및 대외협력, 사업기획
및 관리, 안심구역 기술지원
및 관리 등
- 채용인원 : 3명

02

한국과학창의재단

2020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위촉직
2차 채용 공고 (5.18-6.2) ▶

- 채용분야 : 과학수학검인정
(초등과학교과용도서),
과학수학검인정
(초등수학교과용도서),
과학문화기획사업 등
- 채용인원 : 5명 이내

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계약직연구원
채용공고(ICT통계) (5.20-6.3) ▶

- 채용분야 : ICT통계정보 위촉 연구원
- 채용인원 : 1명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	(주)마인즈랩
채용분야 (주요업무)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인즈랩 App Developer 모집 + AICS - Developer
자격요건	High-Level Programming language를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Design Pattern, Data Structure, Algorithm, Database 등 CSE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우대사항	Java, Python, Kotlin, Swift, Dart 등 사용 및 관련 업무 경험 유무 형상 관리 도구 (git 등) 사용 경험 유무 기획 직군과의 협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수 개발 기술에 대한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 접목, 사용하는 능력 우수 기타 각종 Application 개발 경험자 우대
공고기간	2020.5.8. ~ 상시
공고 원문	http://www.saramin.co.kr ▶

기업명	(주)아르고넷
채용분야 (주요업무)	JAVA/웹 프로그래머 채용 + JAVA / 웹 프로그래밍 (Java, Spring프레임워크 필수)
우대사항	공학계열
공고기간	2020.5.13. ~ 2020.7.12.
공고 원문	http://www.saramin.co.kr ▶

